



# 인천광역시의회



받는곳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 조

제 목 안전 철회 요구

2021. 3. 2자로 강원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2021. 3. 2)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을 3. 16일 용역 결과가 공개된 사유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1부. 끝

민경미

(45.13)

김현수

박종희

김민호

이명재  
이종우

2021년 3월 17일

고재우  
이인성

정창호  
김기홍

철회 요구자 : 강원도 의원 (인)

(철회요구 서명부: 붙임)

안명재  
김희연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철회자 서명부

연번	의원명	서명(인)	연번	의원명	서명(인)
1	김현우		18		
2	강근학		19		
3	백준비		20		
4	소민호		21		
5	조성예		22		
6	이병재		23		
7	고종수		24		
8	이용범		25		
9	이태양		26		
10	정창수		27		
11	김기훈		28		
12	김병재		29		
13	이우진		30		
14	김현		31		
15	김기태		32		
16			33		
17			34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074
----------	------

발의연월일 : 2021. 3. 2.

발 의 자 : 강원모, 이오상, 안병배,  
고존수, 박인동, 김종인,  
이용범, 민경서, 정창규,  
조성혜, 손민호, 이병래,  
임지훈, 백종빈 의원

## 1. 주 문

- 화물차 주차장 건립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대비하여 부족한 배후단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아암물류 2단지인 송도 9공구를 남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고시 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임.  
12만8천m<sup>2</sup>의 송도9공구 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주민 안전위협, 소음·공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임.
- 2019년 6월부터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간담회, 시의회 주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주민들의 소통창구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2019년 10월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촉구 청원’을 부결시킨바 있음.

또한 인천시는 2020년 1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인천시는 늑장 행정으로 민민 갈등을 더 이상 유발시키지 말고 화물차 주차장 용역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행시켜주기를 촉구하는 바임.

## 2. 건의안 이송처

-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 3. 첨부

- 이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1부.

#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오리무중에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2019년 10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아암물류2단지에 예정된 화물차 주차장의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였고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의회의 판단은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거주지역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 만큼 각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청원 부결 이후 시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조성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작년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해가 바뀌도록 감감무소식 상태다. 그러는 사이 아암물류2단지 도로는 화물차로 점령당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급기야 올해 2월 22일 인천 화물연대는 화물차를 동원한 실력투쟁에 들어가 민민 갈등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인천시의 조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예정한대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용역 결과의 지연이 계속될수록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대립이 격화

될 뿐이다. 만일 아암물류2단지가 주차장 부지로 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약속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다른 대체 부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는 약20,000대에 육박하지만 확보된 주차면수는 5,000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니 골목길마다 주·박차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입지 선정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송도국제도시가 안전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암물류2단지 동측 교량 접속부 연결 공사와 아암물류2단지와 8공구 사이의 완충녹지 조성 또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